

3차 상법 개정안 기대에 지주사 급등… 국민연금도 매수 확대

배당세 개편 겹치며 주주가치 부각
한화·HD현대 등 지주사 주가 강세
국민연금, 삼성물산 등 지분 확대
주주환원 압박·경영권 부담도 커져

주요 그룹 지주회사들의 주주들은 요즘 절로 웃음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연내 처리 의지를 밝히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어서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도 지배구조 개선 및 정책수혜가 예상되는 지주사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그룹 지주사 (췐한화는 올해 들어 주가가 203.35% 올랐다.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은 44.43% 뛰었다. HD현대는 153.16%, (주)SK는 103.04%, 롯데지주는 27.75% 각각 상승했다.

그간 지주사는 그룹의 최상위 지배 회사라는 특성상 오히려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시장 평가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저평가되는 경우가

〈주요 지주회사 주주 환원 정책 정리〉

기업명	적용 기간	주주 환원 정책	그 외 자본 정책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CJ	2023~2025년	1. 별도(조정) 순이익의 70%를 배당 2. 매년 주당배당금(DPS)을 유지 또는 상향	-	X
LG	2024~2026년	1. 별도(조정) 순이익의 60%를 배당	'27년 Target ROE8~10%	24년 11월
SK	2024~2026년	1. 시가총액 1~2%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또는 추가 배당 2. 최소 주당배당금(DPS) 5,000원 보장	1. Target ROE '26년 8%, '27년 10% 2. Target PBR 1배	24년 10월
한화	-	없음	-	X

많았다. 하지만 1, 2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3차 상법 개정안까지 국회 통과를 앞두면서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감이 지주사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도 호재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증권가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3차 상법 개정이 이뤄져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가 일괄 소각된다면 자사주 악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의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계기가돼 지주사재평가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한이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지주 업종은 저평가돼 왔고 주주가치 제고가 재평가의 근간이 된 업종"이라며 "3차 상법 개정안 논의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은 해당 업종의 호조 지속 기대를 높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내년은 기대가 본격

적으로 실현되는 해가 될 전망"이라며 "사업 포트폴리오상 순자산가치(NAV) 증대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꾸준한 관심을 가지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도 지주사를 사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OCI홀딩스 지분을 8.49%에서 10.57%로 2.08%포인트(p) 늘렸고 효성(1.04%p), 동아쏘시오홀딩스(1.01%p), 삼성물산(1%p), 두산(1%p) 등 지주회사 및 관련 종목에서 비중을 확대했다.

해당 기업들도 겹으로는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있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급등한 주가에 걸맞은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청구서'가 속속 날아들고 있어서다. 현금을 써서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려야 할 수 있다. 해외 사모펀드 등 외부의 경영권 공격 여지를 더 키워 방어비용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주사 주가가 올라 오히려 일가의 승계 비용이 커지는 것도 부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의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 이전 보유 자사주에는 6개월 추가 유예기간을 주지만 소각 의무는 마찬가지다. 임직원 보상 등을 위해 지금까지 이사회 결의로 자사주를 살 수 있던 것도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해 교환 등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했다. '주주 이익 환원'이란 목적에 부합하게 자사주 관련 법을 고쳐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BDC 운용 유연성 ↑… 공시의무로 투자자 보호

비상장·혁신기업 투자 넓히는 제도 개편
운용규제 완화로 유연성 높여 투자 활성화
시당·공시 의무 강화해 투자자 보호

자산운용사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운용할 때 각종 규제 예외 적용을 받아 운용상 유연성이 커진다. 동시에 운용사가 BDC 운용 시 부담해야 할 시당 투자(운용사가 일부 초기 자금을 대는 것) 규모와 공시 의무 등이 명시돼 투자자 보호 책임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입법·규정변경예고를 다음 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BDC는 개인 투자자가 주식 시장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다.

개정안에 따르면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

및 코넥스·코스닥 상장사(이하 주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벤처조합 및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할 때 특정 분야로 투자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투자비율 60%를 계산 시 각각 30%까지만 인정된다. 가령 100만원 중 코스닥 상장사에 40만원, 일반 벤처기업에 20만원을 투자했다면 코스닥 상장사 투자분은 30만원까지만 인정돼 주투자대상기업에 총 50만원 투자했다고 인정된다.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방법은 증권 매입 또는 금전 대여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증권 매입 때는 모험자본 공급 취지에 맞게 주식, 주식연계채권(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채) 매입으로 한정한다. 금전 대여는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의 40% 한도로 제한한다.

BDC는 주투자대상기업에 최소 60%를 투자하되 나머지 10% 이상은 국공채 및 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최대 30%까지

는 재량껏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BDC의 자산총액 10%를 초과해 동일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 방식으로 투자할 수 없도록 했다.

운용 시 일부 예외적 규제 적용으로 유연성을 강화한다.

일반 공모펀드는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 비율을 위반하면 기본 3개월간 규제 적용이 유예되지만, BDC는 기본 1년간 유예된다.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이 고려됐다.

BDC는 1년 안에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최소투자비율(60%)을 충족해야 하지만 시장 상황 등으로 추가 투자가 투자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하면 1년간 규제 적용 유예를 받는다. 비상장주식 등 가격 상승으로 자산 처분이 투자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이면 투자심의위원회 판단 아래 2년간 규제 적용 유예도 가능하다.

/신하은 기자



하나증권이 개최한 기업대항 테니스리그 '하나증권 라이벌스 컵'에 참가한 IT·인터넷 부문 예선 그룹 참가 선수들이 경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하나증권

하나證, 기업 스포츠 리그 '라이벌스컵' 첫발

24개 기업 참여해 두 달간 진행
교류·상생 취지… 경기영상 공개

하나증권은 경기도 화성 테니스오피어에서 기업 대항 테니스 리그 '하나증권 2025 라이벌스컵'을 개막했다고 3일 밝혔다. 하나증권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총 8개 산업군의 24개 기업이 참여한다. 경기는 내년 2월 1일 결승전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며, 각 기업의 임직원들이 팀을 이뤄 경쟁을 펼친다. 주요 현장 콘텐츠를 이틀 경쟁을 펼친다. 주요 현장 콘텐츠와 결과 등은 하나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 '하나TV'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라이벌스컵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스

포츠로 확장한 기업 대항전으로, 전자·반도체 산업의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IT·인터넷, 모빌리티, 금융, 유통, 스포츠 등 다양한 업종의 국내 주요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다. 단순한 경쟁을 넘어 기업 간 상생과 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까지 기대되는 행사다.

김상면 하나증권 ESG본부장은 "국내 주요 기업들이 업계 경쟁을 스포츠로 확장해 공정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무대가 열렸다"며 "하나증권은 앞으로도 국내 테니스 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증시 활황에 증권사 3분기 순이익 2.5조

수탁·수수료 증가에 영업실적 개선
금리 상승 여파로 채권 손익은 부진

올해 3분기 증권사들이 순이익 2조 5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증시의 훈풍이 지속되면서 수수료 이익이 확대된 영향이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증권사 60개사의 3분기 순이익은 2조 492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1조 8109억원) 대비 37.6%(6814억원) 증

가한 수준이다. 반면, 직전 분기(2조 8502억원)보다는 12.6%(3579억원) 감소했다.

증시 활성화로 인해 수수료 수익은 4조 3945억원을 기록해 전 분기 3조 8507억원보다 14.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탁 수수료는 2조 2775억원으로 주식거래 대금 증가에 따라 전 분기 대비 19.6% 늘었다. 기업금융(IB) 부문 수수료는 1조 154억원으로 전 분기(1조 809억원)와 유사했다.

증권사의 자기매매손익은 3조 5033억원으로 전 분기(3조 2444억원) 대비 8.

0%(2588억원), 전년 동기(2조 8975억원)보다는 20.9%(6058억원) 늘었다

다만 채권 부문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채권부문 손익은 2조 3754억원을 기록, 전분기(3조 30억원) 대비 6276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연준·Fed)의 금리 인상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 국고채 금리도 동반 상승한 영향이다. 채권 보유 규모가 큰 대형사의 채권 관련 손익 감소 규모(-5018억원)가 중소형사(-1255억원)보다 크게 나타났다.

9월 말 기준 증권사의 자산총액은 6월 말 대비 6.6% 증가한 908조 1000억원을 기록했다.

/신하은 기자

KB증권, 인도 공략위해 뭄바이 사무소 열어

M&A·지분투자 전초기지 역할 기대

KB증권은 인도 금융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뭄바이에 사무소를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일 진행된 뭄바이 사무소 개소식에는 유동완 주뭄바이 대한민국 총영사, 로히트 쿠마(Rohit Kuma) 인도 증권거래소(NSE)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사무소는 뭄바이 남부의 전통적인 상업 중심지인 나리만 포인트(Nariman Point) 지구와 금융 중심지인 BKC(B

andra Kurla Complex)의 중간 지역에 위치해 있어 본격적인 인도 금융시장 투자 기회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KB증권은 설명했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KB증권은 인도 금융시장의 중심인 뭄바이에 거점을 마련해 현지 M&A(인수합병), 지분투자 등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